



#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

## 강남대성학원 인문 4반 정다은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학원 인문 4반에서 재수를 하고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진학한 20학번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현역 때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틀어서 수능을 가장 망쳐서 큰 고민 없이 재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고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면 평생 다시 도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것 같았고, 그동안의 제 노력과 앞으로의 꿈을 생각했을 때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행복할 것 같았기에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반수가 아닌 재수를 택하냐고 많이 물어보았는데, 다시 수능을 봤을 때 최소한 2019학년도 수능만큼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5-6개월의 시간으로는 제가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저는 1월부터 강남대성 조기 선발반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정규반이 시작하는 2월까지 휴식을 가져도 편히 쉬지 못할 거 같았고, 혼자 공부를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할 듯해서 조금 일찍 학원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과목별 공부 방법>

#### ① 수학

저는 현역 때 유독 못하는 과목은 없었지만 확실한 강점 과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은종찬 선생님이 수학 과목을 담당하시기도 했고, 국어보다는 상위권 대학에서 점수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에서 고득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수학을 저의 강점 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강대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알고 있는 쉬운 개념을 가르치실 때도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열심히 필기하면서 배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개념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사용하시는 교재의 문제들을 항상 수업시간 전에 진도 나갈 부분만큼 풀어봤는데요. 혼자 풀 때는 모르는 문제의 경우 최대한 답지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고민해본 뒤에 정말 모르겠는 문제는 답지를 가볍게 쓱 한 번 읽어보고 답지를 덮은 뒤에 혼자 힘으로 다시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들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어느 개념이 헷갈리는지 문제 옆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두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해결하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말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 현역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문제를 임의로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때는 '이런 유형은 수능에 나오기 힘들 거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수능에 안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수 때는 선생님들이 주시는 자료와 더프리미엄 모의고사의 고난도 문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 넘게 고민해본 적도 허다했고, 주말 자습 중 8시간 이상을 수학에 쏟은 적도 많았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만의 문제 풀이 루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정 모양의 조건이 나오면 이러한 공식을 세워야 한다'를 체화시켰는데요. 제가 킬러 문제를 풀 때 항상 상기시켰던 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모든 조건을 한붓그리기처럼 연결했을 때 답이 나온다. 한 조건이라도 빠트리면 잘못 푼 것이다. ② 문제가 막히면 문제 풀이에 사용될 수 있는 개념과 공식을 모두 떠올려본다. 수능에 교과 과정 내에 발상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도 많이 풀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이 쌓였기에 수능 날에 21번, 30번 풀이를 시작할 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 수능에서 21번을 제외한 문제들은 익숙한 유형 또는 자주 사용했던 개념이 활용된 문제였기에 더 확신을 가지고 풀이에 임할 수 있었고, 2020 수학 나형에서 10분을 남기고 깔끔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 ② 국어

한편, 국어는 본래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많이 한다고 실력이 바로 상승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 네 분의 국어 선생님이 각각 화작문/시험 운영, 문학, 독서, EBS를 돌아가면서 수업하셨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균형 있게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과목 특성상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정답인 방법 또한 없다고 생각해서 열린 태도로 국어 수업에 임했습니다.

국어 공부를 하면서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문제 풀이 노하우를 들으면서 저만의 독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괜찮다 싶은 독해법은 가리지 않고 바로 자습시간에 적용해보고, 제 방식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훈련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평가원 기출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 출처의 지문들을 편집해서 제공해주셨는데, 이 지문들을 공부하면서 배경지식도 쌓고 새로운 유형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9월 모의평가 이후로 수능 당일 날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자주 풀었는데요. 저는 매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는 오답보다는 피드백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평가원 논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충고를 듣고 해설지의 답의 근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지문을 읽을 때의 저의 태도를 교정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전 실전 모의고사 피드백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매 모의고사마다 걸린 시간, 점수, 총평을 적고 각 영역별로 피드백할 상황을 적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 노트를 읽고 수능 당일 국어 시험 직전에도 이 노트를 읽었는데, 문제 풀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꼼꼼하게 수능을 준비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에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수험생활>

저는 재수 생활 내내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점수 상승에 벽이 있는 느낌이었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은종찬 선생님과 상담이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매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따로 불러서 전체적인 성적과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인강을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수학은 직접 편집하신 보충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항상 따뜻한 응원과 따끔한 조언을 같이 해주셔서 용기를 가지되 자만은 가지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저의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제 학습 태도를 보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의고사를 제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 <학원의 장점>

강남대성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실력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강남대성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나보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 였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옆에서 저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주말 자습에 매번 참여했는데요. 아침부터 주말 자습에 참여하기 위해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6시 기상, 12시 점심식사, 6시 저녁식사, 12시 취침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고, 수능 날에도 이 습관이 빛을 발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 집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쉬고 싶을 때 쉬게 되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하게 되지만 학원에서 자습을 하면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공부를 계속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도 계속 집중할 수 있었고, 점심 저녁 시간에 잠깐씩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 힘든 자습 와중에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나 개념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답은 같게 나왔더라도 다른 사고과정을 거친 친구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는데요. 수능이 다가올 때쯤에는 서로 격려도 하고 각자의 시험장에서의 팁을 공유하면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재수 시절 동안 '평소처럼 공부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능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한 결과, 원하던 입시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내 힘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강한 탓도 있었고, 기왕 재수를 결심한 거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수능 직전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데,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수능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함을 깨끗하게 지울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태도가 걱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재수를 마치고 좋은 성적을 얻은 것도 좋지만 무언가를 위해 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성취해냈을 때 얻게 되는 뿌듯함을 알았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서 앞으로 평생 제 재수 생활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